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2025. 8. 15.(금) 00:00부로 소상공인, 청년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사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받아 우리 사회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주권정부는 생계형 형사범, 고령자·유아 대동수형자 등 사회적 약자와의 따뜻한 동행을 계속하겠습니다.

○ AOO(34세) : 교도소에서 1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수형자

- 순간적으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남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도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수형 중 아들을 출산하여 교도소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음
-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아이와 함께 수형중에 있었는바, 이번에 출소하면 바리스타 자격증을 활용해 카페를 열어 아이와 함께 새출발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BOO(38세) : 생계가 어려워 봉지라면 등을 훔친 수형자

-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가 집을 나간 이후, 작은아버지의 양육아래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출 등으로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낸 후, 수년간 단순 노동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다가 무인점포에 들어가 봉지라면 6개와 과자 3개를 가지고 가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형 중임
-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 변제도 하였으나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음. 이번에 특별사면으로 출소하게 되면 부모가 없는 가운데 함께 의지하며 자랐던 친누나의 보호 아래 다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재기하게 될 것임

○ DOO(67세) : 생활고로 양말과 닭강정 등을 훔친 수형자

-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 섬유공장, 식당, 청소용역 업체를 전전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중, 2008년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된 전 남편을 간호하면서 생계가 극도로 어려워지자 대형마트에서 양말 1켄레, 닭강정 등을 훔쳐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형 중임
-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 변제도 하였으나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음. 이번에 출소하면 교사인 아들과 함께 살며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 것으로 알려짐

○ EOO(67세) : 궁핍한 가정형편으로 인스턴트 커피 등을 훔친 수형자

- 경기 오산에서 9남 3녀 중 여덟째로 태어나 중국음식점, 염전 등에서 일하다가 고령으로 직장을 잃고 기초연금으로 생활하는 등 생활이 궁핍해지자 편의점에서 인스턴트 커피 1상자, 양말 등을 훔쳐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형 중임
- 피해액이 소액이나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음. 대상자는 고령이고, 난청이 있어 수형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번에 사면이 되면 가족들의 보호를 받으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게 될 것임 ▣

|       |              |     |                          |
|-------|--------------|-----|--------------------------|
| 담당 부서 | 검찰국<br>형사기획과 | 책임자 | 과 장 김 태 형 (02-2110-3269) |
|       |              | 담당자 | 검 사 곽 중 욱 (02-2110-3269) |

